

# 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만든 때** 약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

**만든 나라** 그리스

**만든 재료** 청동.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이다.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손기정 선생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로 정해진 문화재입니다.



올림픽



그리스



보물



여러 방향으로 보기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



뒤쪽 모습



위쪽 모습



안쪽 모습



결승선에 1등으로 도착한 손기정 선생



옷에 그려진 일본 국기를 가리고 있는 시상식 장면



돌려받은 청동 투구를 쓰고 기쁘게 웃는 모습

사진 제공 | 손기정기념관

## 손기정 선생 우리 민족의 자랑

청동 투구를 기증한 손기정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일본의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경기에서 1등을 했지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선수로 금메달을 딴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기정 선생의 금메달은 우리 민족의 기쁨이었습니다.

원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에게는 청동 투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올림픽의 규칙에 올림픽 선수가 너무 비싸고 귀한 기념품은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청동 투구는 손기정 선생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베를린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손기정 선생은 청동 투구를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손기정 선생은 1986년 베를린 올림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청동 투구를 돌려받았습니다.

## 기증의 의미 우리 모두의 이야기

기증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행동입니다. 손기정 선생은 “이 청동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이라고 말하며 돌려받은 청동 투구를 나라에 기증했습니다. 손기정 선생의 기증으로 이제 누구나 청동 투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동 투구를 보며 청동 투구에 담긴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 알아 두면 좋은 단어



투구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모자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강제로 빼앗은 기간 (1910년~1945년)



올림픽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운동 경기 대회로, 여러 나라가 참여한다. 경기에서 1등 한 사람은 금메달, 2등 한 사람은 은메달, 3등 한 사람은 동메달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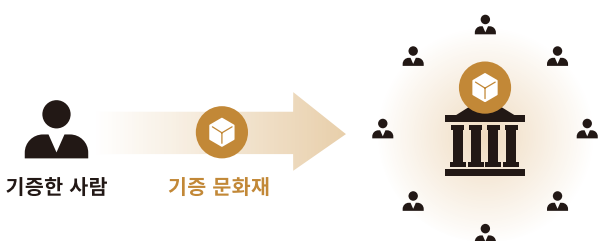
마라톤

42.195킬로미터(km)를 달리는 달리기 운동 종목



기증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